

말과 행동 일치하고 삶과 수행이 통일되어야 참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장·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도법 스님은 ... 한국 실천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제주 출생. 1965년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했다. 1990년 젊은 스님들의 수행단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다. 1995년 남원 실상사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농촌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 실상사를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1998년 조계종 종단분규 때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분규를 정리했다. 이런 왕성한 활동으로 도법 스님은 2000년대 성철·서옹·원효 스님에 이어 존경받는 스님에 꼽히기도 했다. 금산사 부주지, 실상사 주지 등을 거쳐 불교계 농학교장, 지리산생명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장 등 여러 직함을 갖고 있다.

선거 때나 인사를 받을 수 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향해 절을 했다. 4월 19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들의 상생과 화해 법회의 모습이었다.

법회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불교계와 조계종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잘못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여당도, 불교계와 조계종도, 국민을 부처님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번지수를 제대로 짚은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의 일갈 끝에 국회의원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100배를 했다.

도법 스님은 지난해 화쟁위원회를 통해 봉은사 직영지정 문제와 4대강 사업을 1000년 전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이용한 불교적 지혜로 접근했다.

도법 스님을 만나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다. 때마침 조계사에서 봉축을 기념한 행사로 도량이 떠들썩했다. 야단 법석이 따로 없었다.

스님은 초저녁에 있을 화쟁리더십 강의를 위해 실상사에서 막 올라온 길이라고 했다.

스님에게 출가한 사연을 물었다. 이유는 두가지이다. 훌륭한 스님은 어떻게 발심해 출가를 했을까. 어려서부터 비범함이 있었는지 모른다 싶은 개인적 호기심과 이런 이유로 출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두들 출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다.

도법 스님이 출가한 이유는 의외였다. 스님은 어머니가 권해서 출가를 고민해 봤고, 소설 <원효대사> <사명대사>를 보고 스님의 삶을 동경해 출가했다.

스님은 아버지 얼굴을 본적 없는 유복자이다. 제 주 4·3사건으로 가정을 잃은 집안이 편안할 리 없었다. 빨갱이 집안으로 낙인 찍혀 어머니와 함께 한 어린 시절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도법 스님은 “어린 시절 주체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웃어넘기 시키는 대로 해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가난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불만은 없었다. 소설 <원효대사> 등을 보고는 김제 금산사를 찾아 출가했다. 그 시절, 절은 폐쇄·배타적이었다. 일체 세속과 관계해서는 안됐다. 부모·형제와도 왕래나 교류가 있어서는 안됐다.

도법 스님은 절에서 시키는대로 묵묵히 출가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사람이 찾아왔다. 스님은 출가했으니 어머니가 위독하더라도 안 만나는 것이 옳다 싶었다.

그 모습을 본 도반이 도법 스님을 불렀다. “아무리 스님이라도 어머니 아들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 순간, 도법 스님은 ‘생사’에 관한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다.

평소에는 세속을 등져야 한다더니 위독한 어머니

를 만나지 않았다고 뒷말이 나오는 절 분위기도 이해할 수 없었다.

도법 스님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결국,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무한 존재가 무엇을 이룬다고 아등바등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다. 이런 생각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죽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돼 갔다. 출가·수행까지도 무의미해보였다.

삶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 물음을 품고 도법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찾았다. 경전을 봤지만 시원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강원 졸업을 3-4개월 앞뒀을 때였다. 경전·법문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오직 참선만이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도법 스님은 12년 동안 제방 선원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을 했다. 화두 참구만으로 몸부림쳐본 시절이 이 때였다.

“책에는 1주일, 3개월, 3년이면 깨쳐서 도를 이룬다는데 소식이 잠잠했어요. 답답했죠.”

스님을 번민케 만든 것은 공부에 진전 없는 것뿐이었다. 주변의 도반, 구참 등 말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수행·생활이 제 각각 모순됨이 컸다. 말로는 중생구제한다는 이들이 실제 삶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배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의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떻게 해야 수행과 삶이 통일될

에 그치지 않겠나. 직접 공부하기보다는 대중이 화엄사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공부하는 마당을 만들자. 그것이 화엄학이었다. 화엄학립을 연 스님의 정신은 이후 선우도량, 실상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으로 이어져 왔다.

도법 스님은 “수행이 삶과 통일되지 못하고 전통과 권위, 큰스님의 말씀에 경도돼 한국불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부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이다.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불교관과 수행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부처님은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네 인생을 내가 행위한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한 물건이 주어졌는데, 자신의 행동에 따라 수건·겉옷 등 그 가치와 쓰임이 정해진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부처는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행이다. 부처행은 이성과 내생에 걸쳐 수행을 거듭하고 복덕을 닦아 먼 훗날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교관과 수행론이 부처님 뜻과는 정반대로 형성돼 전통이란 이름으로 관행처럼 불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스님에게 “스님의 사상은 돈오점수가 아니라 돈오돈수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를 조사선이라 말하는데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 말씀을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말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배탈이 난 사람 쓰이는 약이 다르잖아요? 적체적소에 쓰였나를 따져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것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둘 다 모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스님은 “불교를 잘못 해석하니 삶과 수행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부처님은 ‘나의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를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는 과학이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해소해주듯 부처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해결해줍니다.”

팔정도든 부처님이 제시한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스님은 정어(正語)를 예로 들었다.

“팔정도에 정어가 포함된 것은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리 언어만 제대로 다루면 해탈·열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한국불교가 언어를 제대로 다루면 해탈·열반하고 견성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던가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랬다.

도법 스님은 “정어는 거짓말을 말라 등 피상적 문제가 아니다. 언어만 제대로 다루면 1/8은 해탈된

<화엄경>대로의 인생·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반성과 사회완성이 곧 상구보리 하화중생

수 있을까? 말처럼 삶도 멋질 수 있을까? 세상과 자신을 기만 않고 사는 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불교에서는 화엄사상·보현행원이 신앙처럼 강조돼 왔다. 스님은 “고민 끝에 화엄과 선이 만나는 실천체계로 가는 것이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한동안 <화엄경>을 집중해 읽었다. <화엄경>대로 인생·세상이 이렇다면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엄경>처럼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이 하려는 대로만 하며 살던 사람이 바뀐 것도 그 때였다. 스님은 이제는 내 방식·내 길을 가겠다고 선방을 뒤흔쳐냈다. 그리고는 김제 금산사에 화엄학립을 열었다. 스님의 속가나이 22살 때 일이었다.

도법 스님은 자기반성과 사회완성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말했다. 깨달음과 수행은 자기반성과 사회완성의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

“한국불교는 화엄의 토대에서 선이 꽃피운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토양이 메말라 꽃도 시든 상황이지요. 화엄이 제대로 공부되면 선도 제대로 됩니다.” 스님은 홀로, 혹은 주변인과 화엄 공부를 하는 것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중정사서: 석운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원로부회장 석무공 대종사	원로부회장 석만월 대종사	호 계 원 장 석월오 대종사
승 정 원 장 석원정 대종사	종 회 의 장 석법일 대종사	기 획 원 장 석법상 종사	문 화 원 장 석지명 대종사
총무원장직대 석해오	호 법 원 장 석원명 대종사	감 찰 원 장 석다우 종사	교 육 원 2국장 석해인
사 정 원 장 석현종 대종사	포 교 원 장 석해운 대종사	교 육 원 1국장 석대덕	문 화 부 장 석해주
교 육 원 장 석무겸 대종사	교 육 원 부원장 석운오, 석대명, 석법오	감 찰 국 장 석법진	행 사 부 장 석명오
총 무 부 장 석능현	호 법 부 장 석대연	재 무 부 장 석도현	
포 교 부 장 석해동	교 무 부 장 석성오		
의 전 부 장 석근홍			

<교구총무원>
 부산총무원 **석정은** 김해총무원 **석청해** 거제총무원 **석덕운**
 창원총무원 **석법일** 진주총무원 **석덕오** 전북총무원 **석설산**

<비 구 니 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해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예술회위원장 **조영선 (무혜심)**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 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증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법음법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재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 해탈할 수 있어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말라야에 올라야 부처님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절을 찾아야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한국불교는 수행하려면 삶의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삶·수행이 통일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스님이 앞에 놓인 흰 찻잔을 들어 보았다.

"이 찻잔이 흰색이요? 흰 찻잔을 희다고 보는 것이 아닐지언정입니다. 실상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정견(正見)이지요. 이 견해에 신념이 생기는 것이 정사(正思惟)입니다. 흰 찻잔을 희다고 말하는 것이 정어(正語)이고요.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행(正行)·정업(正業)이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정명(正命)입니다. 이를 생활화·문화화·대중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正精進)입니다. '이것은 흰 찻잔이다'라고 늘 기억하고 깨어있음이 정념(正念)입니다. 누군가 흰 찻잔을 검은 찻잔이라고 말하러 험박·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정(正定)입니다."

도법 스님의 말처럼 정어(正語) 하나만 제대로 알면 팔정도 전체가 살아난다.

스님은 "언어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다. 언어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인생의 짐이 100근에서 40~50근은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다툼은 나를 세우고 너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을 아는 것이

자타불이(自他不二)이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이다"라고 말했다.

화쟁은 존재들이 다툼 없이 어우러지는 것. 스님은 술·쌀·사람을 예로 들었다. 술이 없으면 쌀로 밥을 지을 수 없고, 쌀이 없으면 술이 무용지물이 되며, 사람이 없으면 술·쌀 쓰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서로 존재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것, 상호 의존하는 존재로 서로 빛나게 함을 아는 것이 화쟁이다"라고 말했다.

화쟁은 존재들이 다툼없이 어우러짐 불교계, 우리말·역사에도 목소리 내야

도법 스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화쟁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붓은사와 4대강사업이었다. 그 중 4대강사업은 화쟁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해 완료를 앞두고 있다. 4대강사업은 화쟁 사상으로 왜 해결되지 못했을까?

"붓은사 직영사업장은 총무원과 붓은사가 모두 종단 개혁·발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붓은사건은 당사자가 해보겠다고 마음을 냈지만 4대강사업은 달랐다. 정부가 마음을 내지 않아 힘이 필요했다. 조계종이 작심했다면 힘이 있었겠지만 시간상으로도 너무 늦었다."

특히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 활동이 4대강 사

업에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어도 불교적·사회적으로는 큰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가·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불교는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와 정부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손잡아왔다면 화쟁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손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정치권의 변화를 기다려서는 아무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며 "종단이 자기방향과 입장을 확립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민족문화수호운동이 불교문화에 국한된 점도 지적했다. 민족문화가 불교문화만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스님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해서라면 불교계가 한글·역사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에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에 행복·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탄생계를 통해 개인에게는 해탈·열반을, 사회에는 불국토의 비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간을 절망과 불안 공포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힌 존재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글=조동성 기자·사진=백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연 전에 인도 여행을 한 일이 있다. 일정 가운데 타지마할도 경유하게 되었다. 샤 자한(Shah Jahan, 1592~1666)왕은 예술을 매우 사랑했다. 그는 역대 인도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낭만적인 군주였다. 왕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왕비 몸타즈 마할을 못 잊어 지은 무덤 궁전 타지마할은 위용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순백의 궁전이다. 이 건물은 인도 중세의 최대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기단은 사방 56m의 정사각형 모양이다.

타지마할 인근에 여장을 풀고 아침 산책길에서 돌을 주었다. 그 흔한 돌인데 왜 손이 갔을까. 배울 것이 많은 돌의 모습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저 돌의 고향은 아마 깊은 계곡이었으리라. 모진 풍상에 깎이고 세월이 스치고 개울물에 씻겨 저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후 누 군가의 필요에 따라 이곳까지 옮겨 온 것이 아닐까.

사람이 저 몽우리처럼 동글게 동글게 되지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자. 해능은 5조 홍인의 문하를 떠나 남해 범성사에 당도했다. 마침 인종법사의 <열반경> 강의를 있을 때였다. 인종법사는 교학의 대가로서 출가자는 아니었다. 비풍비번의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해능에게 사발하게 된다. 마음이 움직인다 함은 유심론(唯心論)의 입장에서 본 견해일 것이다. 일체 만물의 작용이나 동정(動靜) 등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선에서는 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란 인체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을까 궁금한 일이다. 궁금증을 풀기위한 해답은 곧 작용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육식 가운데 마음이 눈에서 작용하면 본다고 한다. 귀에 작용하면 듣는다고 하고... 마음은 동글 원(圓)으로 곧 잘 표현되기도 하는데 원은 일종의 마음의 대명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선의 입장에서 보면 깃발이 나부낀다든지 바람이 움직인다든지 마음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말은 차별계[色]이고, 평등계

사람이 등글지 못한 것은 아집 때문 내 생각만 옳다하니 세상은 불협화음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아마 너무 큰 집을 지어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큰집이란 견고한 아집이 아닐까. 아집에 국집하다 보면 주변 무엇도 배제하고 만다. 상대를 받아들일 여백이 없어지고 만다. 내 생각만 옳고 상대편 생각이 모두 그러던 세상은 불협화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면서도 전혀 그런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 그 역사적 오류의 사례가 있다. 지구가 동글다는 평이한 진리도 예전에는 용인되지 않았다. 오늘날 지구가 판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터인데.

인자심동(仁者心動)이란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다. 여기서 어질 인(仁) 자는 '당신', '그대' 라는 제2인칭의 경칭이다. <무문관> 제29쪽에 비풍비번(非風非幡)이 나온다.

어느 날 칠번(七幡)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육신각신하고 있었다. 한 스님은 깃발이 날린다고 우겨대고 또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다. 내기에서 지꾸 지면서도 다시 하자고 달려드는 웃진아비마냥 말이다. 그때 해능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날리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요." 이 통쾌한 답변에 두 남자는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空]에서 볼 때, 맥 빠진 말이 되고 만다. 선지(禪旨)와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고 만다. 깃발이 나부낀 때 마음이 깃발과 한 몸이 되면 깃발이 날린다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어진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바람이니 깃발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들이 인식될 리가 없다. 소위 현현장부(憲憲丈夫)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종에서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쇠송망치에서 소리가 납니까. 종을 쇠송망치로 치니 소리가 나지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과 쇠송망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앞의 인자심동의 이치를 대입해 보면 쉬 풀릴 문제라고 본다.

근세 어느 고승은 모난 자신의 삶을 반조하며 느낀바 컸던 모양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범명에는 등글 원자를 넣어 지었다고 한다. 모나지 않게 동글게 살라고 하는 깊은 성찰과 염원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타지마할

불기 2555년(2011)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해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